

# 별명·풍류경연·해양치유...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섬 축제...권역별 다양한 행사 청산도 은하수 투어·보길도 미술랭·생일도 해안길 걷기

‘청정 완도’ 섬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흘간 이어진다.  
완도군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2023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축제는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도 등 섬 권역과 완도 해변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에서 열린다.  
‘완도권’과 ‘청산권’ ‘보길권’ ‘생일권’ 등 권역을 나눠 다양한 행사를 치른다.  
가을 섬 여행은 ‘치유의 바다, 완도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슬로시티’ 청산도에서는 20-22일, 27-29일 ‘범바위 은하수 투어’가 진행된다.  
주말 저녁 문화관광해설사와 범바위에서 가을 별자리를 감상하는 ‘별명’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산도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따온 해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는 해녀포차와 청산도 관광 자원을 도안으로 활용한 ‘천가방 만들기’가 진행된다.  
고산 운산도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보길도 세연정에서는 ‘등불 축제’가 펼쳐진다. 열흘간 해금과 판소리 등 우리 소리와 색소폰·밴드 공연 등을 즐기는 ‘고산 풍류 경연’도 이어진다. 세연정 주차장에서는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보길 미술랭’ 행사장이 차려지고 ‘보길 패션쇼’와 ‘보길도 글짓기 대회’

가 열린다.  
보길도와 예작도는 있는 예작교가 지난 7월 개통해 방문객들이 편의도 더했다.  
생일도에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백운산에 펼쳐진 옹졸-금곡 5km(1시간 30분 소요) 해안길을 걷는 ‘백운산 탐방’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인기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은 26일부터 29일까지 생일도를 찾아 1박 2일 체험을 한다. 같은 기간 바쁜 일상을 잊고 휴식할 수 있는 ‘생일 명 스테이’도 금곡 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각종 전복 요리 판매와 전복 경매, 해양치유 체험, 전자음악(EDM) 무대, 요트 체험, 마술쇼 등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의 가을밤 치유 콘서트도 매일 열린다.  
다도해일출공원과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탁 트인 바다와 오색찬란 국화꽃을 감상할 수 있는 국화 전시회를 연다.  
정도리 구계등 일원에서는 해안절벽이 보이는 숲길 3km를 걷고 돌아오면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남파랑길 걷기’ 행사를 운영한다.  
약산 해안치유의 숲에서는 치유 체험과 가을 숲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완도 주요 섬 지역과 해변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에서 ‘2023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이 열린다. 청산도 방문객들이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모습. (완도군 제공)

음악회, 낙엽 손수건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치유 숲길’이 진행된다.  
한편 오는 20일 열리는 축제 개막식에서는 완도군과 영화 ‘도가니’를 만든 제작사 삼거리픽처스가

영화 ‘씨네이아’ 투자 협약을 맺는다. 이 작품은 완도를 배경으로 촬영된다. 협약식에는 주연 배우인 정해인과 강은탁이 참석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정바다와 난대 숲이 어우러

진 완도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을 통해 좋은 추억 쌓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1만2000㎡ 코스모스 물결...해남공룡박물관 가을빛 ‘물썩’

### 꽃단지 포토존 조성 관람객 인기 매직쇼 등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

해남공룡박물관이 가을빛이 찬란한 코스모스 물결로 가득 차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공룡박물관 인근 대규모 꽃단지 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관람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만2000㎡ 면적의 꽃단지에는 포토존이 조성돼 있어 공룡박물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필수코스라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군에서는 주말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가을 나들이에 나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 특별공연도 운영한다.  
지난 14일에는 마리오네트 인형극이 열렸다. 오는 22일 버블 매직쇼가 28일에는 풍선 달인쇼가 진행된다.



해남공룡박물관 인근에 최근 코스모스가 만개한 1만2000㎡ 면적 꽃단지와 포토존이 조성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이와 함께 다음달 4일에는 요술쇼 공연이 11일에는 매직 저글링쇼가 펼쳐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룡과 아름다운 자연을 모두

만날 수 있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 가을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군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건립 팔 걷었다

### 묘량면 운당리에 3305㎡ 규모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영광군이 모깃말 등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하고 연구하기 위한 ‘영광군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조성에 나선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영광군 미래농업자원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는 모시풀 등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고 농식품 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된다. 영광 농산물 상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업 순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센터는 묘량면 운당리에 3305㎡(1000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곳에는 떡 개발 실험실, 가공 실습 교육장, 모

시 실험실, 이론 교육장, 식품 제조실 등 6개 분야 공간이 마련된다.  
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은 ㈜전남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게 맡겼다.  
영광군은 강종만 영광군수 주재로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의회 의원, 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기관의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의견을 펼쳤다. 연구용역에서는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을 위한 관련 계획과 법규를 검토하고 유사 사례와 관련 기관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적정 건축 규모를 제시하고, 세부 공간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는 다음 달 초 열린다.  
강종만 군수는 “교육·보육 환경 조성, 농산물 가공식품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 농산물 가공의 선진화,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영광군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1억송이 단장’ 월출산 국화축제 28일 개막

### 11월12일까지 공연·체험행사

‘월출산 국화축제’가 오는 28일부터 11월12일까지 영암 월출산기차랜드와 영암읍 일대에서 열린다.  
‘국화,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영암군이 1억 송이 가을 국화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했다.

민선 8기 선보이는 새로운 영암군 캐릭터 남생이·달토끼·월출산이 구름다리 조형물과 함께 기차랜드 입구부터 관광객을 맞이한다.  
트로트가요센터, 가야금산조기념관, 야외공연장, 물놀이장, 감창조 생가터 등 공간에는 ‘폴 인 러브 영암’,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등 주제를 갖고 국화 24만여 점을 배치했다.  
영암군은 축제 주제인 ‘빛’에 맞춰 기차랜드 물놀이장에 ‘달빛 폭포’를 조명 장식으로 연출했다.

축제장 곳곳에는 특색있는 야간 촬영 공간과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오는 29일에는 영암군민의날 전야제 행사와 연계해 영암 최초로 ‘드론 라이팅 쇼’도 연다. 월출산과 달빛을 배경으로 영암의 밤을 역동적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야외공연장에서는 가을 분위기를 고조할 다양한 공연과 국화 오감 체험 등 20여 종의 행사를 펼친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주간에 국화의 빛과 향에 취하고 야간에는 이색 조명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 다사랑봉사회

### 가을맞이 효도봉사활동

### 노인 400여명에 전복죽 나눔

목포 다사랑봉사회가 목포 이리동 하당동 노인 400여명에게 가을맞이 건강 기원 전복죽 나눔 행사를 진행해 귀감을 사고 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우리목포교회에서 이정태 담임목사와 교우들의 봉사후원과 힐링투어 김윤창 대표의 차량 25인승 12대, 낙원교회의 35인승 후원 등으로 성황을 이뤘다.  
또 유한회사 경영건설 김성환 대표, 유한회사 금봉건설 나준엽대표, 유한회사 미광ENG 전종태 대표, 머뭇피쉬 이우희 대표, 홀딩스 및 숲투경 닭볶음탕 안재석 대표, 미래스마트팜 박미경 대표,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지우 김형남, 주식회사 한국건설 김형중, 압해도 한옥마을 진미옥대표, 무안군청 정인선, 금호아파트 박정호, 호반아파트 전채은, 라피아노 이준실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민들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성국 위원장,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부위



원장,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 진보당 최국진 위원장, 조영실 이리동장, 최혜 강 하당동장, 인스빌아파트 백진우 자치회장 등이 동참해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다사랑봉사회 김태은 회장은 “가을맞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바람을 뒤로하고 많은 지역분들이 적극

적인 동참해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사랑봉사회는 지난해 어버이날 맞아 집수리를 봉사, 코로나 19 방역활동, 아름다운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화단 물주기, 설에는 이웃과 함께 떡국떡 나눔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지역내 알찬 봉사단체란 평을 받고 있다.  
/목포=장봉현 기자 jbs@kwangju.co.kr

## 신안 흑산도 새공예박물관 새 단장 개장

다양한 철재들이 머무는 신안 흑산도에 마련한 새공예박물관이 새롭게 단장했다.  
신안군은 최근 흑산면 새공예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해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개관한 이 박물관에는 신안군 청 직원들이 10여 년간 수집한 새공예 작품이 전시됐다. 개관 때 20개국 700여 점이었던 공예품은 이달 현재 27개국 1100여 점으로 늘었다.

신안군은 공예품 500여 점을 선별해 새롭게 전시하고 있다.  
나무, 금속, 광물, 도자기, 유리 등 재질별로 작품을 나눠 전시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 작품을 추가로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물관 밖에 조성된 새조각공원에는 아프리카 잠브웨이 쇼나조각 100여 점과 자연괴석, 야생화가 어우러졌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추진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영암군이 본격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2024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산물이 하락할 때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조성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과 지원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영암군·영암군의

회·농민단체·지역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4년 최저가격 보장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사업의 범위·대상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영암군은 2-3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암형 가격안정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